

전남광주 첫 악장, 하나의 선율로 펼쳐는 클래식 무대

특별시립교향악단, 하반기 시즌 프로·출연진 공개

정기연주회·오티움·체임버·찾아가는 공연 등 지역 관객 위해 활동 범위 넓혀 음악나눔 실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이 통합 이후 더 넓어진 무대에서 첫 하반기 시즌을 연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에 따라 악단 명과 공연장 명칭이 새롭게 바뀐 가운데, 교향악단은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 실내악 무대, 찾아가는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가 된 지역의 관객과 만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은 2026년 하반기 시즌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공개했다. 이번 시즌은 광주시립교향악단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으로 새롭게 출발한 뒤 처음 선보이는 하반기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랜 시간 광주시민과 함께해 온 교향악단은 이제 전남까지 아우르는 이들과 정체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다. 하반기 시즌에는 정기연주회 6회, 오티움 콘서트 3회,

체임버 시리즈 5회가 마련돼 새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음악의 여정을 이어간다.

하반기 정기연주회는 모두 6회로 진행된다. 각기 다른 주제와 협연자를 통해 고전과 낭만, 복유럽의 정서, 대서사적 울림까지 클래식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첫 무대는 지난달 10일 제408회 정기연주회 ‘고전’이라는 타이틀로 열렸다. 클라리넷 김상윤이 협연자로 나서 고전의 정제된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했다.

이어 오는 28일 제409회 정기연주회 ‘만화경’에서는 플루트 김유빈이 함께한다. 9월 18일 제410회 정기연주회 ‘낭만의 유산’에는 첼로 심준호가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10월 23일에는 제411회 정기연주회 ‘Nordic Echo’가 열린다. 호른 김홍박이



협연하며 복유럽 음악의 울림을 전한다.

11월 27일에 선보일 제412회 정기연주회 ‘SAGA’에서는 바이올린 박규민이 함께하고, 12월 12일에 열린 제413회 정기연주회 ‘Dot.’은 김대진이 지휘와 피아노를 맡아 하반기 정기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해설과 함께하는 대표 기획연주회 ‘오티움 콘서트’도 하반기 3회에 걸쳐 이어진다. 악기별 매력을 조명하며 관객이 클래

식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된 무대다.

지난달 23일 열린 오티움 콘서트3 ‘Cello’는 김영연의 지휘와 해설, 첼로 백승연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오는 9월 9일 오티움 콘서트4 ‘Violin’ 역시 김영연이 지휘와 해설을 맡고, 바이올린 김현서가 무대에 오른다. 11월 5일 열린 오티움 콘서트5 ‘Flute’는 이병욱의 지휘와 해설, 플루

트 한여진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단원들의 밀도 있는 호흡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체임버 시리즈’도 하반기 5회 마련된다. 대규모 교향악과는 또 다른 실내악의 매력과 악단 단원들의 개성 있는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지난달 25일 선보인 체임버 네 번째 시리즈 ‘The Art of Bassoon’을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다섯 번째 체임버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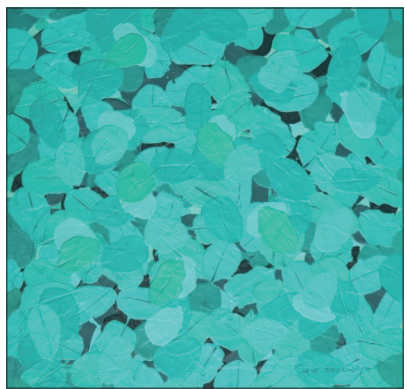
‘Brass & Beat’, 10월 13일에는 여섯 번째 체임버 시리즈 ‘Trio : Pathétique’, 11월 11일에는 일곱 번째 체임버 시리즈 ‘Souvenir’, 12월 15일에는 여덟 번째 체임버 시리즈 ‘Winter Romance’가 차례로 관객을 찾는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예술로’는 하반기에 이어진다. 통합 이후 전남 지역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 무대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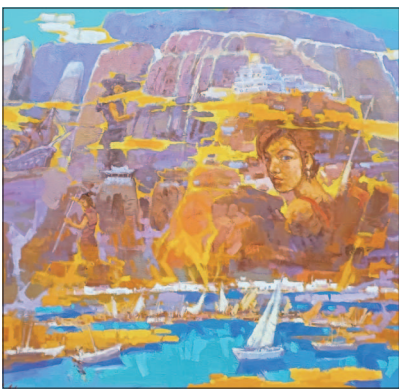
공간의 제약없이 더 많은 이들과 음악을 나누려는 시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이 지향하는 공공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보여준다. 시립교향악단은 정기공연장 무대뿐 아니라 지역 곳곳으로 발걸음을 넓히며, 하나 된 지역과 함께 올리는 선율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의 2026년 하반기 공연 안내와 티켓 오픈 일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교향악단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서순례 작 ‘시유의 숲 유월’



문준길 작 ‘VR city’



김건국 작 ‘남도 노을속으로’



최근일 작 ‘The Starry Night-梨花에 月白...’

‘마음의 시선’으로 본 세상과 삶의 이야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 고흥 소재 남포미술관(관장 박형수)은 기획전을 지난 6월 17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림’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출품작은 회화 40여점.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풍경과

순간을 눈으로 마주하며 살아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눈에 보이는 모습 너머, 마음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감정 속에 자리한다는 전체 아래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과 순간을 넘어,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감정과 기억, 그리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자리다.

참여작가로는 김건국, 문준길, 서순례, 최근일 작가 등 4명이다.

이들 참여작가는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화와 위로, 성찰과 공감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이들 작가의 작품은 다채로운 색채와 형태를 비롯해 섬세한 조형 언어로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시각적 재현을 넘어 내면의 정서와 사유를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고흥 남포미술관, 기획전 30일까지 4명 출품
내면의 정서·사유 표현·공감·성찰 기회 제공

깊은 감정적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예술이 시대와 세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언어만으로는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게 하는 힘을 지니는 가운데,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표현을 통해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기억과 감정을 마주하는 한편, 앞

서 언급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해줄 전망이다.

박형수 관장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림’전은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과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전시”라며 “예술을 통해 삶 속에 축적된 다양한 감정과 기억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장단 해체와 재구성, 전통 타악 새로운 ‘태동’

남도국악원 ‘파편의 장르: 태동’ 15일 진악당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우수작품 공모 선정작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을 선보인다. 토요상설공연으로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전통 타악의 본질적 에너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확장해 나가는 창작 연주 단체 음악집단 태동(太動)이 준비한다.

전통 장단과 무속 음악의 역동적인 리듬을 기반으로 현대적 음악 어법과 창작 기법을 접목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은 이번 무대에서 깊이 있는 음악적 교감과 호흡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인다.

‘파편의 장르: 태동’이라는 타이틀에서 ‘파편’은 전통 장단을 분해하고 재구성하

는 태동의 창작 과정을 의미한다. 태동은 전통 장단이 지닌 고유한 생명력과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음악 구성 기법을 접목해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낸다. 무대는 ‘비취타’를 비롯해 ‘매카니즘’, ‘별쇠’, ‘꿈결’, ‘구르궁궐’, ‘장단회상’, ‘K-판’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을 위해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청년들의 상상이 무대로…참신한 시선 릴레이

‘2회 광주 청년신작예술제’

14~29일 씨어터연바람서

아이옴팀 등 3개 팀 참여

청년 창작자들의 참신한 공연이 3주간 무대에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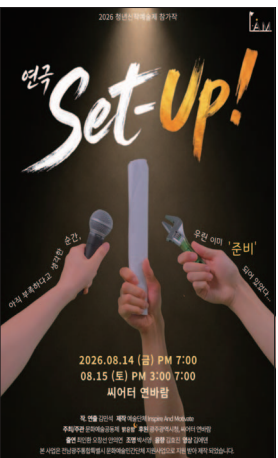
극단 밝은밤(대표 임재빈)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 동 씨어터연바람에서 ‘제2회 광주 청년신작예술제-STAGE LOADING..’을 선보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예술제는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준비한 신작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공연예술 축제다.

청년 창작자에게는 실전 발표의 기회를, 시민에게는 새로운 공연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여 예술가들은 작품 발표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지역 공연예술계 안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예술제에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모집한 아이옴팀, 일인창작실팀, J&J크루·BN크리에이티브 등 3개 팀이



참여한다.

공연의 문은 14~15일 아이옴팀의 ‘Set-Up!’으로 연다.

이어 21~22일 일인창작실팀의 ‘소리몽키즈’, 28~29일 J.&J크루·BN크리에이티브의 ‘행복사진관’ 등 독창적인 시각을 담은 연극과 음악극 등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극단 밝은밤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공연 발표를 넘어 청년 예술인들이 서로의 작업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임을 내다봤다.

참가자들이 제작 과정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무대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동

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임재빈 대표는 “청년신작예술제는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무대”라며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공연장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준비한 다양한 신작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예술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립 문화예술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입장료는 인스타그램 팔로우시 할인된다. 공연티켓 별 세부 일정과 티켓 예매 방법 등은 극단 밝은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청년문화기획자 육성

‘문화-지역 잇는 프로젝트’

(재)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오는 28일까지 ‘2026 청년문화기획자 프로젝트-사가지 더 파이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가지’는 ‘사회적 가치 지향’의 줄임말로, 2022년부터 재단이 운영해 온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사업이다. 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개별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들과의 연대로 확장해, 문화가 지역과 사람을 잇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올해는 그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더 파이널’ 편으로 진행돼 의미가 남다르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해 새 출발을 알리는 2026년, 사가지를 거쳐 온 청년 기획자들과 전국의 신규 기획자들이 함께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이후의 지역이 마주할 사회적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풀어보는 무대를 마련한다는 점에 서다.

행정구역의 통합만큼이나 그 안에 살아갈 청년들의 연대와 협력이 지역의 미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2~2025년 사가지 졸업생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문화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며, 1차 선정 이후 워크숍과 리서치 과정을 거쳐 피칭데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15명이 하나의 팀이 돼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실행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선정 규모와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문화기획자는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이며, 19일 오후 2시에는 재단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합쳐지는 전환의 해에, 사가지를 거쳐 온 기획자들이 이제 전국의 동료들을 직접 무대로 불러 모을 차례”라며 “‘사가지 더 파이널’ 프로젝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페이지의 첫 문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